

예언과 탄생 수난과 속죄 부활과 영생

합창으로 들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개관 15주년을 맞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진성진)이 국립합창단을 초청해 '헨델의 메시아' 기획공연을 선보인다.
성서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메시아는 헨델이 오페라 공연에 실패한 후 1741년 아일랜드 공작 류테난트 경의 의뢰로 불과 3주 만에 완성한 작품이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수난의 일생을 3부로 담아낸 이 곡은 전체적으로 맑고 온화한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제1부(예언과 탄생), 복음의 선포와 그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제2부(수난과 속죄), 굵은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영생의 찬미로 끝을 맺는 제3부(부활과 영리한 생령)으로 이어진다.
제2부 마지막에는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이 등장한다. '할렐루야' 코러스 연주 중에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청중과 함께 기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는

소리문화전당 개관 15주년 기념 국립합창단 초청 '헨델의 메시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란 가사 앞에서는 국왕일지라도 기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시 중산 계급의 윤리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선 이 곡과 함께 단골 레퍼토리로 연주되는 베토벤의 '합창'도 감상할 수 있다. '모든 인류는 하나가 된다'는 곡의 가사처럼 따뜻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무대에 서는 국립합창단은 합창 음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 평균 60여 회의 공연을 소화하는 국립합창단은 신진작곡가에 위촉하는 공연을

비롯해 기획·해외공연 등을 통해 한국합창의 세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탁월한 음악적 해석 능력으로 청중을 사로잡는다는 평을 받는 구천 지휘자는 20년 동안 국립합창단의 부지휘자를 역임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국립합창단의 제9대 상임이사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티켓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정해은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 채용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국악연주단 기획단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홍보마케팅으로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 및 기획공연 등 모든 공연의 홍보마케팅 업무를 진행하며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홍보·마케팅·신문방송학·음악·무용·예술경영·문화콘텐츠 등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오는 7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국립민속국악원 행정지원과 및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응시서류 다운로드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3) 620-2306. /정해은 기자

싸늘해지는 마음을 하모니카로 따뜻하게

재즈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씨 공연 9일 김제문화예회관에서

겨울밤 싸늘해지는 마음을 하모니카로 녹여줄 전제덕의 무대가 오는 9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회관으로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시각 장애를 극복한 국내 최고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재즈하모니카 연주자인 '전제덕'이 하모니카 하나만으로 재즈, 퓨전, 라틴, 소울,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연주로 유쾌

하고 감동적인 무대로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아르만도의 롬바'를 시작으로 '꽃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 메들리, 영화 레옹의 주제곡으로 잘 알려진 'shape of my heart', 전제덕 정규앨범의 수록곡인 dancing bird 등 다양한 음악으로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박노태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협약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재단 회의실에서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전북지역 예술인들의 복지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이사과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박계배 대표이사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복지사업 공동 홍보, 예술인 복지 참여 및 대상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지역에 예술인 대상 복지 지원사업 공동 추진, 양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예술인 복지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협력 등이다.
이병천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

이사는 협약식에서 "그동안 지역에서는 홍보의 부족 및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많았다."며 "두 재단의 MOU를 통해 지역에서 갈등을 느껴왔던 예술인 복지에 대해 전북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활동증명서 발급 확대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북지역 예술인패스 사용자 확대 및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계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성을 더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없도록 예술인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완주군, 문화중심 도시재생... 삶의 질 향상

삼례문화예술촌·창조공간 누에 등

완주군이 폐시설을 활용한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과 '창조공간 누에(nu-e)'가 대표적 지역의 문화재생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1920년대 지어진 양극 창고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미디어아트갤러리, 디자인박물관, 책공방, 책박물관, 목공소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특히 삼례문화예술촌은 폐시설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예술공간으

로 재조함으로써, 문화예술이 꽃피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도심재생을 도모한 '지역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매년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삼례문화누리예술제' 개최를 통해 올해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대상 및 아시아관광 마케팅 사례상 등 대외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창조공간 누에는 완주군청 옆 옛 잡업시협장의 10개 건물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곳이다.
누에는 목공이나 섬유, 도자, 뉴아트교육장과 전주장북연구원 등 공예중심 시설과 함께, 전시장이나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스태프 모집

매년 관객과 함께 성실하게 성장해온 무주산골영화제가 아름다운 자연과 수많은 영화가 어우러지고 초록빛 가득한 6월, 청정 무주 일대에서 개최되는 무주산골영화제의 다섯 번째 영화 여행에 동참할 열정 가득한 인재 스태프를 기다린다.
모집분야는 홍보, 초청, 기획운영, 프로그램 부문으로 영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근무기간 중 전주와 무주 지역에서 거주 가능해야 하며, 영화제나 영화 관련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이며, 지원 서류는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를 각자 개성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여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이메일(mjfilmfest@naver.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이달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www.mjff.or.kr)를 참고하면 되고,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사무국 기획운영팀 (063-220-8252~3)에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2월 7일)

<p>▷쥐띠 48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이다. 60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타인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72년생: 경쟁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운이다. 84년생: 작은 것에 대한 성취는 가능하나 욕심을 부리지 마라.</p>	<p>▷소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고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기는 운이다. 73년생: 이동이나 변동수를 가지면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운이다. 85년생: 작은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니 마음을 다스려라.</p>	<p>▷호랑이띠 50년생: 늦게 움직이면 농치게 되니 매사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눈앞의 것을 따르기 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실행하라. 74년생: 무리한 일의 진행이나 약속은 삼가라. 86년생: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삼가라.</p>	<p>▷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은 실망만 가져오게 되니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려라.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자가 나타나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75년생: 계획을 변경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좋은 때가 아니다.</p>
<p>▷용띠 52년생: 편안한 운이니 하고자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64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말속에 담이 있다. 76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무리는 금물이다. 88년생: 편법을 쓰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다.</p>	<p>▷뱀띠 53년생: 좋은 운세이니 미루지 말고 행동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65년생: 타인에게 베풀면 더욱 돌아오는 운이다. 77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이겨내면 노고에 대한 보답이 있는 운이다. 89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으니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라.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활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한다. 90년생: 마음을 비우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p>	<p>▷양띠 55년생: 기존의 것에 기대해봤자 결실을 맺지 못하니 변화를 가져라. 67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79년생: 사소함 확장이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이다.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p>
<p>▷원숭이띠 56년생: 뜻밖의 귀인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으며 행운이 따르는 운이다. 6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운이다.</p>	<p>▷닭띠 57년생: 금전거래는 삼가라. 상대가 처음과 나중의 행동이 다를 것이다.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93년생: 원형을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밝이 없겠다.</p>	<p>▷개띠 46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으며 기쁜 일이 생기는 운이다. 58년생: 안정적인 운이다. 70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처음에 손해 보던 후에 얻게 된다.</p>	<p>▷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이니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59년생: 과음, 과식은 삼가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71년생: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라. 83년생: 서투르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p>